

투데이

‘장흥한우’ 4대 경쟁력

①값이 싸다 ②신선하다 ③관광 연계 ④민·관 함께

호남지역 최대 한우 산지인 장흥군이 ‘명품 한우’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흥에서는 3000여 농가에서 모두 5만6000여마리의 한우를 사육중이며 매년 5~10%가량 늘고 있다. 지난해엔 전국 1만두 이상 출하 시군 가운데 1등급 이상 판정 비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전국이 구제역 여파로 흔들리던 사이 장흥은 청정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명품 한우 주산지로 발돋움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토요시장에서 소비된 한우도 모두 178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1마리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장흥이 명품한우의 주산지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시중보다 30~40% 저렴

①지난해 장흥에서 출하된 1만4929마리 중 약 3분의 1가량인 4514마리가 모두 토요시장에서 소비됐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토요시장’이라는 산지유통체계가 갖춰져 유통구조가 단순화됐다. 복잡한 유통과정이 생산자 직접 판매나 수집·도축 등 2~3단계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소매점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할 수 있다.

74.3%가 1등급 판정

②지난해 장흥군에서 출하한 한우 1만4929마리 가운데 74.3%인 1만950마리가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 등급도 39.6%인 5910마리, 최상위 등급인 1++ 등급은 1881마리로 12.6%나 차지하고 있다. 1등급 이상 비율 전국 1위로 전국평균 62%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전남 평균 66%를 크게



‘정남진 장흥 토요물품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장 내 한 식당에서 한우·키조개·표고버섯으로 이뤄진 ‘장흥삼합’을 맛보고 있다.

/장흥=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게 앞서고 있다.

이는 명품 브랜드 유지관리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덕분이다. 특히 1등급 한우를 사육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풀 사료 재배에 힘쓰고 있다. 풀 사료의 주 원료인 이탈리아안아그라스(청보리)를 전국 최대인 5000ha에서, 육수수도 60ha의 논에서 1년에 두차례 재배한다.

주변 불거리 풍성

③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가운데 3분 1가량이 지역 내에서 유통·소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근 관광지를 토요시장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천관산과 편백숲 우드랜드, 대덕 신리 개막이체협마을, 제암산 등 주변의 풍부한 관광지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토요시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큰 몫을 했다.

인근 보성과 강진에 들렀던 관광객들도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 매생이, 무산김을 맛보고 구매하기 위해 장흥을 방문할 정도다.

郡 주도 혈통관리

④장흥은 90년도 중반부터 한우 사육 농가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이후 장흥군 주도로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해 혈통 관리, 사료, 가공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5년 75억원을 들여 개장한 토요시장도 이 가운데 하나다.

특히 개장 직후부터 군청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교대로 교통안내와 친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과 한우 농가들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종기기자 kykim@

20마리서 240마리로 김길현씨 성공 사례



“10년간 지켜온 철학은 ‘명품혈통’ 등급 낮은 한우는 증식 과감히 포기”

“2~3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길현(37·장흥군 관산읍 죽청리)씨는 지난 2002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직후 한우 사육에 뛰어 들었다. 초창기 20마리로 시작한 한우가 10년만에 240마리까지 늘었

다. 올해는 40마리를 증식했다. 그는 한해 2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다 갖춘 정도로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 그가 지난 10년간 한우를 키우면서 가장 주력한 것은 ‘명품혈통’ 찾기였다. 좋은 사료를 먹고 잘 키

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혈통에 있다는 철학이 바탕이 됐다. 때문에 김씨는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 한우는 과감히 증식을 포기했다. 이 같은 김씨의 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출

하한 한우 가운데 35%에 불과하던 1++ 등급이 올해는 무려 60%까지 늘었다.

그는 앞을 내다보고 한우를 사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당장 소값이 떨어지면 출하를 앞당기는 많은 농가들이 가격 때문에 사육을 포기하거나 출하를 서두르지만 한우는 29~30개월이 지나야 상품성이 있다”며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소값 파동이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총선 사범 91% 급증

19대 입건 203명...구속은 14명이나

광주·전남지역 제19대 총선 선거 사범이 18대에 비해 크게 증가, 불·탈법이 난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입건한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132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 이는 18대 총선 당시 입건자 69명보다 63명(91.3%)이 증가한 것으로 구속자는 2명에서 무려 11명이나 늘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 등 30명을 입건해 12명은 구속기소, 17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기소중지한 바 있다. 목포·순천·해남·장흥지청 등까지 포함하면 203명(구속 14명)에 이른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179명에서 24명(13.4%)이, 구속자는 11명에서 3명(27.2%)이 각각 증가했다.

광주지검 본청의 선거사범이 증가한데는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민주통합당 광주시 동구 불법선거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대 총선 전국 선거사범 입건자는 1471명으로 18대 1253명보다 218명(17.4%)이 증가했으나 구속자는 45명으로 18대 총선과 같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복지 사각’ 해결한다

5개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 자치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자치구 희망복지 지원단에는 10~14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돼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복지제도의 확충에도 주민들의 복지 체감이 높아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빈곤예방과 탈(脫) 빈곤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의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문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등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동 주민센터에는 종합복지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은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 복지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사회복지사 79명을 선발, 자치구에 배치했다. 또 2014년까지 50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충원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 진행요원 교육대상자 920명 확정

F1 조직위원회와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가 올해 열리는 ‘F1(10월 12~14일) 코리아그랑프리’ 진행요원(오피셜) 교육대상자 920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예비 진행요원들은 오는 6일 영암 F1 경주장에서 계속되는 헬모바일 슈퍼레이스 진행요원으로 직접

참가하는 등 단계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경력 여부에 따라 초급자 대상인 일반교육과 경력자 대상 시니어 교육, 의료·소방, 중장비(JCB) 운전원, 트레이너 교육 등 특수교육이 있다. 또 오는 8월 최종 진행요원으로 선발되면, F1 코리아그랑프리 진행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포스하이알(주) 경력사원 모집

Job advertisement for POSCO Mill with details on recruitment criteria,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Public notice regarding the 1959 National Civil Servants' Pension Payment Application, including eligibility and application procedures.

Advertisement for Mudeung Mountain Cultural Foundation's Namgol-dang,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cultural activities and membership.